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28호 [루게 제25106호] 주제104 (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7차 군무자예술회전에 당선된 중대군인들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7차 군무자예술회전에 당선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조선인민군 제549군부대, 제264군부대, 제233군부대, 제630군부대관하 중대군인들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서흥찬동지, 조남진동지, 럽철성동지, 한광상동지와 인민군장병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중대군인들은 여러 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인민군대를 최정예혁명강군으로 키워주신 불세출의 선군명장들의 불멸의 업적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군대원들의 열화와 같은 충정의 마음을 격조높이 구가 하였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중대를 혁명적 동지애와 관병일치의 미풍이 차넘치는 병사들의 정든 고향집으로 만들어가는 나날에 꽃피어나고있는 자랑과 최고사령관동지의 사랑속에서 보람찬 군무생활을 이어가는 자기들의 복된 삶을 감명깊이 펼쳐보였다.



또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혼련명명관철을 위해 밤낮은 군복이 마를새없이 혼련장을 달리고있는 일당백싸움군들의 전투적이며 기백에 넘치는 모습과 인민의 아들딸로서의 본분을 다해가고있는 모습도 잘 보여주었다.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키워주신 우리 인민군대의 영웅적기상이 살아숨쉬고 불이 필필 이는 원수적멸의 복수의 선언, 강철의 억센 신념과 배짱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어 울리는 공연을 보면서

흥분을 누르지 못하였다. 선군조선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평도 따라 억척불변의 혁명적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칼바람마냥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인민군대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라는것을 힘있게 파시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중대군인들이 정책적대가 뚜렷하고 사상 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하는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진행한 공연은 우리 당의 사상과 로선, 정책이 백박치는 공연, 군인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보여주는 실감있는 공연, 화약내가 풍기는 전투적인 공연, 혁명적락관주의가 자넘치는 교양적의의가 큰 공연이라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면서 출연자들과 창작지도 일군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대예술 소조활동은 모든 군인들을 사상과 신념

의 강자, 고상한 정신도덕적 품모의 소유자, 계급의 전위 투사로 만들뿐만아니라 인민군대의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대예술소조활동을 통하여 군인들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당정책의 진수를 깊이 체득하며 계급의식을 칼날처럼 버리는것과 함께 혁명적락관주의와 풍부한 문화적소양을 갖추게 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는 이 사업을 전략적인 문제로 틀어쥐고 일관하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37차 군무자예술회전에 참가한 군인들이 앞으로도 혼련과 군무생활에서 보다 큰 군공

을 세워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출연자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안으시고 멀고 험한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공연을 보아 주시고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길에서 청춘도 생명이 다 바쳐 싸울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